

# 벤츠 C 클래스와 E 클래스 만났다...CLE 쿠페 공식 판매

우아한 디자인·스포티한 주행 성능·최첨단 디지털 사양  
CLE 200 쿠페·CLE 450 4MATIC 쿠페 2개 라인업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쿠페(The all-new Mercedes-Benz CLE Coupe)'의 라인업을 공개하고 국내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쿠페는, C 클래스와 E 클래스의 장점만을 섞어낸 모델로, 메르세데스-벤츠 트립카의 전통을 잇는 우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최첨단 디지털 사양 등을 모두 갖춘 새로운 2 도어 모델이다.

국내에는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200 쿠페와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쿠페 총 2개 라인업을 선보인다.

2도어 쿠페 특유의 비올과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가 융합된 디 올-뉴 CLE 쿠페의 외관은 '샤크 노즈' 형상의 긴 후드와 2개의 파워돔이 강조된 전면부와 스포티한 비올과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된 측면부, 폭을 강조하는 LED 리어 라이트 등을 통해 아이코닉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후면부로 디자인 적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 C 클래스 쿠페 대비 25mm 더 길어진 휠베이스(2865mm)와, 트렁크는 420L로 넉넉하다.

이와 함께 실내에는 스포티한 감성과 주행 재미를 배가할 수 있는 전용 실내 디자인 사양 및 음향, 디지털 편의 사양이 탑재됐다. 먼저 디 올-뉴 CLE 쿠페만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더했다.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의 경우, 앞좌석 등받이 가장자리에 통합된 2개의 라우

드 스피커를 포함한 총 17개의 스피커가 탑재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더욱 몰입감 있는 음향 경험을 제공한다.

또 모든 라인업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수준 높은 개인화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운전자는 온도 설정, 엠비언트 라이트, 오디오, 주차 카메라 등의 차량 기능을 낱자 및 시간, 위치, 내외부 온도, 차량 속도 등 자신이 원하는 특정 조건과 연결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편의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다.

또 유튜브(YouTube), 애플뮤직(Apple Music), 웹엑스(Webex), 줌(Zoom), 앵그리버드(Angry Bird), 틱톡(TikTok)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화상회의, 게임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에센셜(essential), 플로(FLO), 웨이브(Wavve), 멜론(Melon) 등의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최적화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티



디 올-뉴 CLE 쿠페 외관과 내부 모습(왼쪽).

맵 오토도 도입될 예정이다.

디 올-뉴 CLE 쿠페 전 라인업에는 가솔린 엔진과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을 걸 때 최대 17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부드럽고 신속한 엔진 시동을 돕고, 급라이드,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 라인업에는 ISG에 맞춰 개발된 9단 변속기가 탑재되며, 엔진과의 조화로 최적의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디 올-뉴 CLE 200 쿠페에는 직렬 4기통(M254)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에는 직렬 6기통(M256) 가솔린 엔진이 적용돼 최고 출력 381 ps, 최대 토크 51 kgf/

m의 성능을 발휘한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을 걸 때 최대 17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부드럽고 신속한 엔진 시동을 돕고, 급라이드,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 라인업에는 ISG에 맞춰 개발된 9단 변속기가 탑재되며, 엔진과의 조화로 최적의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 모델에는 연속적으로 앞뒤 차축의 댐핑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내믹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과 최대 2.5도의 후륜

조각각을 지원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포함된 엔지니어링 패키지가 탑재돼 민첩하면서도 동시에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편의 장비를 갖췄다.

CLE 200 쿠페는 7270만원, CLE 450 4MATIC 쿠페는 9600만원에 판매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64개 공식 전시장 및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www.mercedes-benz.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기아, 해외 완성차 생산 '4년만에 최대'

지난해 368만대 인도·미국·유럽 등서 증가...중국선 39만대로 '뚝'  
러시아선 14년만에 생산량 '제로'...싱가포르선 처음 595대 만들어

현대차그룹이 작년 한 해 외국에서 368만대가량의 완성차를 만들어 4년 만에 역대 최대 해외 생산 기록을 썼다.

미국과 인도,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산량을 늘린 반면, 중국에서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생산 기지 13곳에서 만든 완성차는 모두 367만8천831대다.

현대차는 미국과 인도, 중국, 튀르키예, 체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8곳에서 224만3천69대를, 기아는 미국과 중국, 슬로바키아, 멕시코, 인도 등 5곳에서 143만5천762대를 각각 생산했다.

지난해 두 회사의 생산량 합산 수치는 2022년 357만4천796대와 비교해 2.9% 증가했다. 동시에 코로나 이전인 2019년(388만3천325대) 이후 4년만의 최대 해외 생산량이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핵심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와 튀르키예, 체코, 슬로바키아는 물론 '자동차 전진시장'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인도에서는 작년 한 해 다른 곳보다 많은 108만4천878대를 생산했다. 이는 양사가 인도에서 기록한 역대 최대 연간 생산량이기도 하다.

이러 미국(72만7천7대), 중국(39만4천249대), 슬로바키아(35만2천24대), 체코(34만5천500대), 멕시코(25만6천7대), 튀르키예(24만2천100대), 브라질(20만4천300대), 인도네시아(7만9천580대) 등의 순이다.

슬로바키아와 멕시코에서는 기아만이, 체코와 튀르키예,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는 현대차만이 완성차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2016년(74만9천120대) 이후 7년 만에 최대 연간 생산량을 보인 반면, 중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중국 내 2016년 양사의 합산 생산량은 182만9천922대에 달했다.

이후 매년 줄다가 작년에는 40만대로 남지 못했다. 2022년 41만2천333대보다 1만8천8대 이상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중국 내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현지에서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고정 비용과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중국 진출 이후 한때 5곳에 달했던 현대차 생산 거점은 현재 3곳으로 줄었고, 향후 그중 1곳인 장저우 공장마저 매각할 방침이다.

현대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생산 거점을 뒀던 러시아에서는 작년에 완성차가 한대도 나오지 못했다. 현대차가 지난 2010년 현지 공장을 준공한 뒤 14년 만의 일이다.

현대차는 러시아에 2012년부터 10년간 매년 20만대 이상을 꾸준히 만들어왔지만, 2022년 4만대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뒤 작년에는 생산량 자체가 없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내 판매 부진 속에 현대차가 그해 3월부터 현지 생산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은 지난달 러시아 업체에 매각됐다.

이밖에 싱가포르에서는 현대차가 처음으로 595대를 생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생산, 실증하는 신개념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구축해 아이오닉5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만들어 일부는 실험적으로 운용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작년 수치에는 베트남 등에서 운영 중인 KD(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 공장 생산량은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전체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철뉴스

## 금호타이어 '엑스타 HS52' 유럽서 기술력 입증했다

유럽 최고 자동차 전문지 'ADAC' 평가 '종합 3위'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유럽 자동차 전문지가 실시한 성능 테스트에서 발군의 성적을 거뒀다.

2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인 아데아체(ADAC) 등이 실시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금호타이어 '엑스타(ECSTA) HS52' (사진)가 종합 3위에 오르며, 국내 업체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데아체는 독일 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120년 역사의 잡지사다.

이번 테스트는 금호타이어와 세계 타이어 회사 16개의 유럽형 여름용 타이어(규격 215/55R 17)를 아데아체가 직접 구매해 진행됐다.

테스트 평가항목은 '마른 노면/젖은 노면의 주행 만족도'와 '마일리지/마모/소음/지속가능성 등 환경적 균형'의 평가 만족도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금호타이어는 컨티넨탈, 미쉐린에 이은 종합 3위로, 최상위 업체에게만 주어지는 '최고(Good)' 등급을 획득했다.

'엑스타 HS52'는 트레드 패턴과 단단한 블록 디자인을 적용해, 노면 접지 시 마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충격과 소음을 줄이고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또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강한 슬더 블록은 핸들링 성능을 높여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제품 개발을 주도한 상품개발2담당 송성학 상무는 "유럽 시장 내 제품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향력 있는 자동차 전문 매거진을 통해 뛰어난 성적을 확보하는 것이며,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금호타이어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극한의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통해 검증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엑스타 HS52는 또 다른 자동차 전문 잡지인 '아우토티빌트(Auto Bild)'가 올해 실시한 여름용 타이어 제품 성능 평가에서도 전체 2위를 차지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현대차그룹, 전기차 구매 이벤트...최대 700만원 혜택

홍충전기 지원 등

기아와 현대가 정부 보조금 외에도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최대 7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는 26일 전기차 모델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EV페스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EV6 300만원 ▲EV9 350만원 ▲니로 EV 100만원의 제조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봉고 EV 구매 고객에 최대 70만원의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된 제주도를 예로 들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 구매시 출고가 5260만원에서 정부 보조금 630만원, 제주

시 보조금 400만원, 기아 혜택 300만원을 더해 구매가가 3891만원으로 낮아진다.

제주도 이외 지역의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고 EV를 구매하는 소상공인 또는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정조합원은 충전기 설치 비용 70만원 할인이나 차량 가격 30만원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아는 또 현대 M 계열 카드도 선수율 10% 이상(보조금 포함) 결제 시 ▲36개월 기준 유예율 최대 60% ▲48개월 기준 유예율 최대 45%를 설정하고 승용 전기차 구매 전용 할부 서비스 'E-라이프 서포트'를 운영한다.

또 신차 구매 후 3년 이내에 또 기아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존 차량 중고차 판매 시 신차 가격(세금계산서상 부가세 포함 차량 가격)의 최대 60%를 보장한다.

현대자동차도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차량에 대해 최대 700만원(차량 가격 할인 120만원, 전기차 충전 크레딧 80만원, 월별 최고할인 최대 5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혜택은 최대 380만원이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제공하는 'EV에브리케어'를 출시했다. ▲충전 크레딧 또는 홍충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신차 교환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신규등록 10대 중 3대 하이브리드 '월간 최대'

지난달 4만5605대 등록...전기차 2541대 '비수기 선전'

지난 1월 국내 신규 등록 자동차 중 하이브리드차(마일드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신규 등록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 대수는 4만5605대로 전체(14만4026대)의 31.7%에 달했다.

지난해 5월 20%를 돌파한 뒤 8개월 만이다. 하이브리드차가 전체 신규 등록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월 17.2%에서 시작해 12월 28.5%, 올해 1월 31.7% 등 매달 상승하는 추세다.

월간 기준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도 2013년

연료별 등록 대수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준에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1월(4만2천671대)보다 약 3000대 많다.

하이브리드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선방했다. 정부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514대를 기록해 역대 1월 중 가장 많았다.

2022년 1월(1872대)을 제외하면 매년 1월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00대 미만이었다. 지난해 1월 995대, 2021년 1월 611대, 2020년 888대 등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